

## 박형룡의 "자연과학으로부터의 반기독교적 추론"에 대한 분석

이상웅(대신대학교 신학부 교수)

### 논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 장로교의 신학적 기초를 놓은 박형룡(1897-1978)의 박사 학위 논문의 개요를 분석 제시하고자 한다. 박형룡이 쓴 "자연과학으로부터의 반기독교적 추론(1931년 미국 남침례교 신학교)"이라는 논문은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관한 주제를 다룬 것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자연과학에서 이끌어낸 잘못된 추론들로 인해 과학과 신앙이 충돌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과학을 제대로 연구하면 신앙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박형룡의 논문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문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1장에서 시작하여 성경,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인간 본성에 대한 고등한 견해, 죄와 구원에 대한 고등한 견해에 대항하는 반기독교적인 추론들을 다루고 있다.

박형룡은 자연과학으로부터 제기되는 신앙에 대한 공격은 과학과 종교간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고 한다. 과학이 인류에 기여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과학에도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과학으로 인생의 모든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가 제시하는 과학과 종교의 바른 관계는 과학이 종교의 기반이 되고, 종교는 과학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런 바른 관계를 설정한다면 과학에 근거하여 기독교를 공격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대립관계로 두는 사람들은 과학을 근거로 기독교를 공격한다. 사실 과학이 기독교와 충돌하는 것은 과학으로부터 잘못된 추론을 이끌어내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다.

**주제어 : 박형룡, 신앙과 과학, 변증학, 한국장로교**

---

2009년 10월 30일 접수; 11월 25일 수정; 12월 12일 게재확정.

- I. 서론
- II. 역사적인 배경(1923-1933)
- III. 학위논문의 분석
- IV. 결론

## I. 서론

박형룡(1897-1978)은 한국 장로교의 신학적 기초를 놓은 큰 신학자이지만 그의 학문적 업적은 오랫동안 공정한 평가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그를 반대하고 적대하는 진영에서 뿐 아니라, 심지어 그가 반평생을 헌신하여 신학을 가르친 보수 정통주의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의 출생 100주년을 주변하여 박형룡의 신학적 업적을 공정하게 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경주되었고, 그러한 긍정적인 평가 작업은 현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박형룡을 멀리서 비판하고 거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그의 학문 세계에 직접 들어가 보면 그의 학문성이 결코 천단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의 주저라고 할 수 있는 『교의신학』(전7권, 1964 - 1973)은 프린스턴의 찰스 하지와 A. A. 하지 부자, 루이스 벌코프, 존 머리 등 어느 개혁주의 신학자의 저술에도 뒤지지 않는 학문성을 드러내고 있고, 그 분량에 있어서는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할 수 있다.

박형룡이 신학 수업을 받은 후에 쓴 최초의 저술은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이었다. 미국의 남침례교신학교(Southern Baptist Seminary)에 제출했던 그의 박사 논문은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관한 주제를 다룬 것이었다. 특히 자연과학에서 끌어낸 잘못된 추론들에 근거하여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던 1920년대 상황에서 자연과학을 제대로 연구하면 기독교 신앙과 충돌될 것이 없다는 것을 논증했다. 사실 지금까지 영어로 작성된 박형룡

의 학위논문의 번역 작업은 고사하고 논문에 대한 학문적인 분석이나 소개의 글이 전무하다시피 했다.<sup>1)</sup>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박형룡에 대한 학문적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루 속히 그의 학위 논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철학과 신학을 전공한 논자로서는 자연과학적 지식이 천단하여 박형룡의 해박한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열기 위하여 그의 논문을 소개하는 수준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 작업이나 비평 작업 등은 보다 더 역량이 되는 분들이 맡아 주리라고 믿고 부족하지만 본인이 이해한 한도 내에서 박형룡의 논문의 개요를 분석 제시하고자 한다. 논자는 박형룡의 논문을 분석하는 본격적인 작업을 제시하기 전에(제 III장) 그가 1920년대에 신학 수업을 시작한 때부터 박사학위논문 작성을 마무리하였던 때까지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간략하게 다루었다(제 II장).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는 필요 없는 부분일 수 있으나 『신앙과 학문』을 읽는 이들과운데는 신학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므로 이런 역사적인 설명이 다소 도움이 될 줄 알아서 먼저 다루었다.

## II. 역사적인 배경(1923-1933)

박형룡이 중국에서 인문학을 전공한 후에 신학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곳은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부터이다. 중국 난징에 소재한 금릉 대학을 졸업한 그는 1923년 초 여름에 뉴저지주에 소재한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박형룡이 후에 밝힌 바에 따

1) 장동민은 그의 학위논문에서 박형룡의 논문 1, 2장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장동민, 1998: 102-16).

르면 그는 원래 한국 선교와 이주 인연이 깊은 시카고 소재 맥코믹 신학교(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에 진학해서 신학을 전공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사람들의 만류로 프린스턴 신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sup>2)</sup> 박형룡은 미국에서 4년간 유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3년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리고 나머지 1년은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보내게 된다.

박형룡은 1923년 9월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하여 1926년 5월까지 만 3년 동안에 신학사와 신학석사(Th. B., Th. M.)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sup>3)</sup> 그는 프린스턴의 신학사 과정이 요구하는 신학 전 분야의 수업들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학칙에 의거하여 신학 석사 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하였다. 그는 존 그래스햄 메이천(1881-1937)의 신약 수업과 게할더스 보스(1862-1949) 교수의 성경신학 수업도 들었다(장동민 1998: 62). 조직신학은 벤자민 B. 워필드(1851-1921)의 뒤를 이은 캐스퍼 위스타 하지 2세(1870-1937)에게서 배우고, 자신의 전공 분야로 택한 변증학에서는 윌리엄 B. 그린(William B. Greene Jr., 1854-1928)교수의 수업을 들었다(Callhoun 1996: 441-42). 그러나 박형룡은 특히 근대주의 내지는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구 프린스턴의 정통주의 기독교를 변호하기에 맹활약을 하고 있던 메이천 교수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 박형룡이 프린스턴으로 간 첫 해(1923년)는 메이천의 유명한 저서 『기독교와 자유주의』(Christianity and Liberalism)가 처음으로 간행되던 해

2) 박형룡, "마포삼열 박사를 추모하며," 『충신대보』(2001년 5월 16일자); 박형룡, 『세계 견문록』, 저작전집 XVII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8), 55. 박용규 (편), 『죽산 박형룡 박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충신대학교출판부, 1996), 171, 177.

3) 박형룡 저작전집 매권 말미에 첨부된 그의 약력 참조. 장동민, 전거서, 61이하. 박형룡이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단 3년 만에 신학사와 신학석사를 마쳤다고 하는 것은 그가 부지런하고 명민한 학생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증거이다. 소열도 선교사의 회상에 이런 사실에 대한 회고가 기록되어있다. "나중에 그레샴 메이천에게 들은 말인데, 헨리 박은 그때까지 그 아래서 공부한 동양인들 중 가장 명석한 학생이었으며 메이천 자신이 그의 학업 자질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했다고 한다(소열도, 『죽산 박형룡 박사의 생애와 사상』, 172)."

이기도 하였다(Machen 1923).

박형룡의 신학사상과 변증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구 프린스턴 신학 전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하다. 구 프린스턴 신학 전통이란 설립 교수인 알렉산더(Archibald Alexander)로부터 시작하여 홉지(Charles Hodge), 홉지(A. A. Hodge), 그리고 바르필드(B. B. Warfield) 등이 계승하고 발전시킨 장로교 신학 전통을 가리킨다. 김길성에 의하면 구 프린스턴 신학 전통은 "스코틀랜드의 상식철학의 도움을 받아, 성경의 영감과 무오,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동시에 장로교 표준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와 대소요리문답에 구현된 성경의 근본 교리들에 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변호"했다(김길성 2001: 13). 그리고 미국의 교회사가인 놀(Mark A. Noll)은 구 프린스턴 전통의 특징으로서 "성경에 대한 헌신, 종교적 체험에 대한 관심, 미국적 경험에 대한 민감성, 장로교 신앙고백의 완전수용, 17세기 개혁 신학적 특징들, 그리고 스코틀랜드 상식철학" 등을 꼽고 있다(Noll 1993 :13, 25-34). 이와 같은 구 프린스턴의 신학적인 특징들은 박형룡이 이미 한국에 있을 때에 장로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수받았던 것들이었다(이상용 2004: 25-33).

박형룡은 신학 석사 과정의 전공 분야로서 변증학을 택하였다고 했는데, 왜 그가 여러 신학과목들 중에서 구태여 변증학을 전공으로 선택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자신의 박사논문의 서문에서 자술한 적이 있다:

8년 전 이 논문의 저자가 미국에 학업 차 건너가고 있었다. 그는 특별히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태평양을 향해하던 어느 날 그는 일본에 유학중인 한국인 학생들이 발행하는 잡지를 읽게 되었다. 그는 한 글을 읽는 도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 떠올랐다. 그 글은 '어느 무신론자의 종교교관'이라고 하는 글이었는데, 학문적이지는 않았으나 극단적인 무신론의 입장에서 쓴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이었다. 이 글을 읽는 가운데 필자는 기독교의 신앙인들을 대신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sup>4)</sup>

한편 뉴저지 주에 소재한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박형룡은 박사과정을 계속하기 위하여 켄터키주 루이빌(Louisville)에 소재한 남침례교 신학교(Southern Baptist Seminary)로 옮겨 가게 된다. 그가 남침례교 신학교로 가게 된 이유는 우선 프린스턴 신학교에는 박사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요, 그의 프린스턴 신학교 시절의 절친한 친구인 로렌스 길모어가 남침례교 신학교에 진학하였기 때문이다(장동민, 1998: 86-88). 박형룡은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변증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이수한다. 그는 1년이 못되는 짧은 기간(1926년 9월-1927년 5월) 동안 학교가 요구하는 박사과정을 다 마치면서도 최우등(*summa cum laude*)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존음을 아껴가면서 학업에 열중했는지를 알 수 있다(장동민, 1998: 91; 박형룡, 1988c: 112-14).

박형룡은 만 6년간의 해외 유학 생활을 마치고 1927년 여름에 귀국하게 된다. 그가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였으나 그의 살림은 너무나 어려웠다. 1927년 8월부터 12월까지 신의주 제일교회 전도사로 시무하다가, 1928년 1월부터 산정현 교회 전도사로 시무하던 중에, 1929년 5월 5일 평양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1930년 8월까지 평양 산정현 교회 동사목사로 시무하였다. 1930년 9월에 평양 신학교 임시 교수로 그리고 이듬해 4월에 정교수로 취임하게 된 박형룡은 1938년 6월 신사참배 반대로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기까지 약 8년간 교수로 시무하게 된다.<sup>5)</sup> 그는 귀국한 후에 정착, 결혼, 사역 등의 어려

4) 1931년 4월 30일자로 쓰여진 서문(박형룡, 1988: 15).

5) 박용규 (편), 『죽산 박형룡 박사의 생애와 사상』, 9-19에 있는 작자 미상의 박형룡 연보에 의하면 그는 1928년 4월 1일부터 평양신학교 임시 교수로 부임하여, 1931년 4월 1일에 정교수로 취임하였으며, 그가 가르친 과목은 변증학, 신학난제, 기독교 윤리학 등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책 140-41쪽에 있는 박이론의 글의 의하면 박형룡은 1930년 3월부터 평양신학교 임시 교수직을 맡았고, 1931년 4월부터 전임교수가 되어서, 변증학, 신학사상, 기

운 여건들 속에서도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일에 힘쓴 끝에 1931년 4월 30일자로 논문을 마무리하게 된다(박형룡, 1988b: 17). 1933년 1월자로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통과된 그의 철학박사 논문의 주제는 *Anti-Christian Inferences from Natural Sciences*이었다.<sup>6)</sup> 10년 전 미국 유학 가는 배편에서 그가 결심한 주제로 마침내 학업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 III. 학위논문의 분석

박형룡 박사의 철학박사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의 학위 논문처럼 독립적인 서론과 결론이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서론은 첫 장 첫 부분에서 다루고, 짧은 결론은 마지막 장 끝 부분에 다루고 있을 뿐이다.

#### 1. 종교에 대항하는 반기독교적인 추론들.

박형룡은 논문 1장 초두에서 자신이 논문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밝힌다: "본고의 목적은 기독교에 대항하여 근대과학의 이름으로 가해진 몇몇 중요한 공격들을 다루어 보는 것이다(박형룡, 1988b: 20)".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학위논문을 썼던 1920년대, 1930년대는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위기의 시기였다. 그 위기의 원인은 바로 근대과학의 발달과 그 과학이 가지고 있는 반기독교적 추론들 때문이었다. 예컨대 진화론, 성경

---

독교 윤리 등을 가르쳤다고 하여 연대상의 부정확함을 노출하고 있다.

6) 그가 타이핑해서 작성했던 학위논문의 원본은 Southern Baptist Seminary 도서관에 보관 중이며, 최초의 인쇄본으로 출간된 것은 『학위논문』, 박형룡 박사 저작 전집 XV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3)을 통해서이다. 박형룡은 1978년에 소천했기 때문에 자신이 쓴 학위논문의 인쇄본을 볼 수가 없었다.

의 고등비평, 신신학과 같은 것들이 전통적인 믿음을 흔들고 있었다. 당시 한국에서도 근대 과학의 세례를 받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독교에 대한 의심과 반대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박형룡은 이들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자신의 절실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보기에 문제의 근원은 과학과 종교 간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고 보았다(장동민, 1998: 102-103).

박형룡은 우선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먼저 종교의 의미를 다루고, 이어서 과학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다룬다. 그는 종교에 대한 락틴티우스, 류바, 레빌 등의 정의를 소개하고 나서 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위해서 찰스 하지가 신앙에 대해서 내린 정의를 수용한다:

What, therefore, the Scriptures mean by faith, in this connection, the faith which is required for salvation, is an act of the whole soul, of the understanding, of the heart, and of the will(박형룡 1988b: 22).

논문에 의하면 박형룡은 과학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프랜시스 베이컨의 전통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아더 톰슨의 과학의 정의를 그대로 수용한다: “과학은 관찰과 실험, 측정과 기록이라는 인식 가능한 방법에 의해서 얻어지는 지식이다. 그러므로 이는 관찰과 실험의 비인격적인 자료에 대한 반성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조직화되고, 증명이 가능하고 통용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지식을 포함한다(박형룡 1988b: 22-23).” 이와 같은 정의에 의하면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윤리학, 역사학 등은 그 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도 없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자연 과학만이 과학이라 할 수 있게 된다. 박형룡은 자연과학의 목적은 “the discovery of laws or general formulae which will enable us to say: ‘If this, then that’”라고 말한 톰슨 교수의 견해를 따른다(박형룡 1988b: 24).

그리고 자연과학의 취하는 방법은 자료수집, 정리와 분류, 실험과 가설, 법칙의 발견 등의 순서를 엄밀하게 밟는 베이컨이 주장한 귀납적 방법(inductive method)임을 소개한다(박형룡, 1988b: 25).

박형룡은 자연과학의 성취(achievements)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limitations)를 분명하게 지적한다. 자연과학을 통해서 미래의 현상을 예측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졌고 또한 인류의 생활을 안락하게 해 줄 수 있는 기술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한다. 그러나 기술 발달의 업적이 너무나 장대한 나머지 현대의 과학은 우리들 시대에 있어서 전능으로 신으로 숭상되고 있으며 대중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박형룡 1988b: 26-27). 자연과학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여 말하기를, "과학이 자연의 실재를 설명해 주는 것은 인간의 감각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부정확한 자료를 산출하며, 학자들 간에도 상충되는 의견들이 많이 있게 된다"고 했고, 더욱이 "생명의 기원과 같은 자연 현상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것들을 알지 못하며, 죽음의 문제와 같은 인류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과학은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과학의 한계로 지적했다(박형룡 1988b: 29-34). 박형룡은 자연과학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인정해야 할 것에 대해서 논문 초두에서 다음과 같이 강하게 요구한다:

Natural science should humbly acknowledge the limitations of its power, so long as it cannot do anything to overcome the greatest evils of life. . . We saw that natural science is only a kind of knowledge among many others. Its scope is limited to the study of inanimate and animate objects only. It aims only to describe the phenomena of nature by the inductive method. Indeed, natural science is beset by limitations(박형룡 1988b: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은 그 큰 업적 때문에 교만해지고 만다고 박형룡은 비판한다. 그가 보기에 가장 잘못된 과학 정신은 과도한 단순화

(oversimplification)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학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부분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속임수요, 자랑이요, 교만이다"(박형룡, 1988b: 35-36). 과학주의는 실제적인 유물주의에 빠지게 되고 인생의 다른 영역에까지 과학의 용어를 가지고 해석하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여기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종교이며, 그 중에서도 유일하신 인격신을 믿는 기독교가 속한다고 박형룡은 지적한다. 그는 헉슬리, 헤켈, 폰트, 프레이저 등의 공격적인 무신론 과학자들을 거명하면서 어떻게 종교가 과학에 의하여 도전받고 있는지를 설명한다(박형룡, 1988b: 36-38).

근대과학의 이름으로 도발되는 공격들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그는 지적한다. 특히 자연과학으로부터 유출된 추론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변형시키고 재 진술하기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파괴하는데 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비평한다. 그들은 근대 과학의 결과들을 과도하게 받아들여다가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인 하나님, 창조, 기적, 영혼불멸, 인간의 자유와 원죄 등을 부인하는데 이르고 만다. 그의 스승 메이천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자유주의는 "자연주의에 뿌리를 둔 운동"으로서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이며, 박형룡은 "적그리스도와 다름이 없다"고 말한다(박형룡, 1988b: 39-43; Machen, 1923: 7). 자유주의자들이 근대과학을 과신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성경의 진리들조차도 재해석하고 심지어는 폐기처분하려 한 것은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부당하게 다룬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종교와 과학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이라고 박형룡은 생각한 것일까? 그는 '자연과학 자체'와 '그로부터 파생되어진 잘못된 추론들(inferences)'을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 우주가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면, 이 법칙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추론이다. 왜냐하면 우주의 원리와 법칙의 존재로부

터, 그 법칙을 만드신 고안자 하나님을 추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학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부터 끌어낸 잘못된 추론이 난무하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 것이며, "과학 그 자체와 기독교 사이에는 아무런 충돌이 없다"고 말한다(박형룡, 1988b: 44).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몽매주의를 조장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문화와 과학의 햇불에 불을 붙여왔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면서 박형룡은 과학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을 구분한다. 그가 보기에 세계는 하나이고, 단지 여러 가지의 차원을 가졌다고 본다. 한 차원이 다른 차원과 대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과학은 종교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종교는 과학을 완성시킨다.

박형룡은 논문의 1장 말미에서 과학은 우리에게 우주의 한 부분이나 한 측면에 대한 유효한 지식을 주지만, 종교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는 천상적 전망을 제공해주며,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제공해 주나 현상계에 내재한 법들과 체계들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과학은 자신의 원리들을 가지고 종교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제 이어지는 장에서 기독교의 근본진리들에 대항하여 자연과학으로부터 잘못된 끌어낸 추론들을 논박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설정한다(박형룡, 1988b: 49).

## 2. 성경에 대항하는 반기독교적인 추론들.

박형룡은 논문의 제2장에서 성경에 대항하는 반기독교적인 추론들에 대해서 다루었다. 초두에서 그는 전통적인 성경관을 요약적으로 진술한다(박형룡 1988b: 53-4):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의 기록이며, 기록 과정은 신적인 감동을 입었다. 오직 정확무오한 성경만이 개인에게 종교적 확신과 확실성을 주며, 그의 신앙과 순종을 요구할 수 있다. 이성이나 경험은 성경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권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근대가 시작되면서 성경의 무오성이 공격받게 되었다. 성경은 인간

의 다른 문서들 보다 더 큰 권위가 없으며, 본질적으로 인간의 경험의 기록일 뿐이며, 따라서 최종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근대주의자들은 주장하였다. 박형룡은 근대주의의 입장을 소개하고 반박하기 위하여 1920년대의 근본주의 대 근(현)대주의 논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해리 포스딕(Harry Fosdick) 교수의 견해를 많이 소개한다. 포스딕은 "성경은 현대시대에 읽고, 이해하고, 믿고, 따르기에 어려운 옛날 책이라"고 말했다(박형룡, 1988b: 55). 그러나 성경의 권위의 실추는 자연과학으로부터 반기독교적으로 추론된 것들로부터 연유하였다고 박형룡은 비판하였다. 소위 성경 비평학이 성경 권위에 파괴적인 운동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포스딕이 성경에 나타난 과학적 오류들이라고 지적한 것을 박형룡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평평한 지구, 땅 밑의 바다, 하늘 위의 물, 땅 밑의 스올(Sheol), 6일간의 창조 등. 진화론자들도 과학적 발견에 근거하여 성경 기록의 진실성을 의심하는데 창조의 순서, 지구의 연대, 종의 기원, 인간의 고대성, 노아 홍수의 국지성 등을 나열한다(박형룡, 1988b: 56-59).

그러면 박형룡은 이와 같은 잘못된 과학적 추론들과 그에 따르는 잘못된 비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를 보자. 그는 첫째로 성경은 '과학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과서'(not textbook of science, but a history of redemption)임을 강조한다(박형룡, 1988b: 59-60). 따라서 성경은 과학적 이론들을 지원하거나 논박하지 않는다. 성경은 구속의 역사로서 영원의 진리들의 선포를 위해서 영적인 의미를 자연 속에 읽어 들인다. 성경은 '자연과학과 다른 관점에서' 말한다. '일상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현상적으로 그리고 비과학적으로' 말한다. 성경은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시적인 표현이 풍부한 대중 언어이다. 박형룡은 이처럼 성경이 과학책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하여 성경 기록의 진정성을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해소시키려고 하였다. 또한 그의 논문 중에 거듭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자신의 견해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주는 여러 과학자들의 견해들도 첨

부한다(박형룡, 1988b: 60-63).

박형룡은 "성경이 비록 과학책이 아니긴 하지만 성경 내에는 과학적으로 큰 실수(scientific blunder)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소위 과학적 오류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들을 많이 소개하면서, 이러한 오해들은 성경적 관점에 대한 오해와 문제시되고 있는 구절들에 대한 불공평하고 부분적인 해석에 기인한다고 반박한다. 성경의 비과학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구절들을 공평하게 살펴본다면 자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과학의 가르침들과 전혀 상충되지 않음을 알게 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박형룡, 1988b: 64). 히브리인들의 우주 창조설(혹은 우주 기원론 cosmogony)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떤 우주 생성론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그는 대답한다. 우주에 대한 성경의 언급들이 현대 천문학이나 물리학과 상충되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박형룡, 1988b: 64-69).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의 순서(the order of creation)가 현대 지질학의 연구 결과와 상치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성경은 연대기적 방법 보다는 선택적이고 주제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sup>7)</sup> 또 다른 편으로는 현대 지질학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하였다.<sup>8)</sup> 그리고 그는 창조순서와 지질학의 가장 발전된 결론들이 정확하게 일치함(in exact accord)을 주장하는 현대지질학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도슨(Dawson), 펨버(Pember), 켈빈(Kelvin) 등을 인용한다(박형룡, 1988b: 73-74). 박형룡은 창세기가 과학적 계시가 아닌데

7) Ibid., 69.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기에 영문을 적는다: "The Bible might have used the selective and topical rather than the chronological method. It may be interpretation, not classification, nor description". 박형룡은 또한 창세기의 창조기사의 특성이 비과학적임으로(being non scientific) 지질학적인 역사와 문자적인 일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 없다고 말한다(ibid., 70).

8) Ibid., 74: "On the other hand, the theories of geology itself are not simple and well-established inductions founded on careful observation, but combinations of partial discoveries empirically made, with speculative ideas of questionable worth."

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면의 차이점들 보다는 일반적인 면에서는 지질학적 연구와 일반적으로 일치되고 있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지구의 나이에 대한 박형룡의 견해는 무엇이였을까? 지질학자들은 광대한 연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성경은 6일간의 창조를 말하고 있고, 성경의 연대기를 종합 정리해서 17세기의 어셔 감독이 제출한 견해에 의하면 지구의 나이는 이제 불과 6천 년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 박형룡은 무엇이 라고 대답하는가 상당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그는 지질학적 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 유연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성경은 지구가 짧은 기간에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For the Bible does not say that the earth was created in a brief period of time)라는 말을 했다(박형룡, 1988b: 78).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광대한 연대(*immense ages*)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과 6일이라고 할 때에 날(*yom, day*)이란 단어의 상징적 해석의 가능성을 그는 타진해 본다(박형룡, 1988b: 79). 이런 해석은 이미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Augustine)에게서도 나타난다고 본다. 창조기사에 있어서 "날이란 하나님의 창조 행위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말한다(박형룡, 1988b: 80-81). 박형룡은 어셔 감독이 주장한 B. C. 4004 창조설을 따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성경이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불과 4천년의 시간이 흘러갔을 뿐이라고 말하는지 결코 확실하지 않다(not at all certain)"라고 말한다(박형룡, 1988b: 82). 성경의 족보 사이에 생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낳았다"(*begat*)는 단어가 직계 자손을 낳았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음을 말한다(박형룡, 1988b: 82-3). 심지어 족보상의 한 사람과 다음 거명된 사람 사이에 수 세기가 생략되었을 수도 있음을 말한다(박형룡, 1988b: 83). 생물학과 지질학의 관점에서 노아 홍수설에 대해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도 박 박사는 고찰을 한다(박형룡, 1988b: 85-88).

박형룡은 이처럼 우주창조론, 창조의 순서, 지구의 나이, 인간의 구고성

(舊故性), 노아 홍수 등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적 계시와 자연과학적 결론들이 부조화나 상충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과학이 항상 참되고 믿을 만하다는 질문을 제기한다. 그는 자연과학자들 모두가 박형룡의 입장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한다. 그는 과학이란 과정적(progressive)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존하는 과학적 결론들은 종종 불완전하며 믿을 수 없으며 가설적인 성격의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박형룡, 1988b: 89). 만약에 과학이 완전하다면 성경에 계시된 진리들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지만, 과학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경과 충돌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에 의하면 현존하는 대답은 우리의 무지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박형룡, 1988b: 94). 박형룡은 당시 유행되고 있던 과학적 결론들이 불완전하고 의심스러운 것임을 말하면서도,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박형룡, 1988b: 95). 박형룡은 성격상 비과학적이므로 그 권위는 과학적 문제들과 별도로 토론될 수 있으며, 성경 안에는 과학적 오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므로 성경의 권위는 조금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한다(박형룡, 1988b: 95).

### 3. 하나님의 존재에 대항하는 반기독교적인 추론들.

박형룡은 논문의 제3장을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뿌리에는 인격적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와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이 놓여있다고 말한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신앙 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신론적 기독교 혹은 범신론적 기독교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무신론과 범신론은 기독교의 최대 원수인데, 근대자연과학과 연맹을 맺으므로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므로 양자의 입장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박형룡이 3장에서 다루는 것은 과학적 무신론과 과학적 범신론 두 주제이다.<sup>9)</sup>

9) 그러나 박형룡은 1935년에 출간한 『근대신학 난제선평』에서는 무신론, 유물

**(1) 과학적 무신론(Scientific Atheism)**

현금의 무신론은 실천적인데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시작은 이론들에 바탕하고 있다. 이론적 무신론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신에 대한 신념은 다 착각이라고 보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대중적인 신부정은 과학적 부정으로서 대중적으로 유물론, 자연론, 진화론에 의해서 대변되고 있다고 본다(박형룡, 1988b: 106).

박형룡은 먼저 유물론에 대해서 다룬다. 유물론은 운동중인 물질이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그것의 창조자나 시작이 없다고 주장한다. 유물론은 모든 실재의 일체를 전부 물질적으로 해석하고 물질의 배후에 정신의 존재나 신의 존재를 부정해 버린다. 이런 사상은 고대 헬라 사상에서부터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왔다. 근대과학에 있어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나 에너지 불변의 법칙도 유물론을 지지하는 듯이 보인다고 그는 말한다(박형룡, 1988b: 107). 박형룡은 유물론자들이 물질의 영원성에 대해서 그리고 운동의 영원성에 대해서 제출한 제설들을 검토하고 응수한다(박형룡, 1988b: 107-114).

박형룡은 유물론이 쇠퇴하는 대신에 조금 변형된 형태인 자연론(naturalism)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말한다. 자연론은 유물론처럼 물질의 본원과 실체에 관한 문제에 접촉하기를 피하고 단순히 물질 이외의 것은 지식할 바가 아니라고 본다. 자연론은 눈에 보이는 현상, 감각할 수 있는 현상만 다루기를 원한다. 현상계 혹은 감각계는 오직 하나의 실재이며, 신이란 '모든 물질적 힘의 총체'와 동의어라고 본다. 그러나 이들도 현실 세계에 일정한 법칙과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이는 우주를 총괄하는 대이지(purposeful Mind)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박형룡은 응수한다(박형룡, 1988b: 115).

유물론은 현존하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진화론(evolutionism)

---

론, 자연론, 불가지론, 실증론, 범신론으로 대별하여 반유신제론을 다루고 논평한다(박형룡, 1988: 313-34).

을 차용한다고 박형룡은 지적했다. 진화론에 따르면 창조자의 존재가 따로 필요하지 않게 된다. 오직 물질의 영원성과 운동의 계속이라는 유물론의 원리만으로 진화의 시작은 가능하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진화론은 진화적 과정 속에 있는 질서와 목적성을 주장하면서도 창조적 목적(creative purpose)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박형룡은 비평한다(박형룡, 1988b: 121). 그들이 진화는 참이라고 가정하지만, 무질서와 우연성을 가지고 질서와 목적을 설명하려는 것은 비논리적일 뿐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본다(박형룡, 1988b: 127).

박형룡은 근대과학으로부터 끌어온 추론들에 근거하고 있는 당대의 무신론의 불합리성(unreasonableness)을 자세하게 밝혔다. 그에 의하면 "유물론, 자연론, 그리고 진화론은 사물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느냐(how)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자연과학의 한계를 넘어서 이것이 왜 존재하느냐(why) 그 기원을 밝히려고 하는 주제넘은 짓을 한 것이라"고 본다. 박형룡은 자연과학이란 유신론에 호의적이지 적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제는 과학에 있기 보다는 잘못된 추론에 있는 것이다. 그는 탁월한 과학자들이 이점에 있어서 동의하고 있다는 것도 예증한다. 자연의 신비를 깊이 파고들수록 그런 과학자들은 우주를 지도하고 통어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며 그와 같은 힘은 수학적 공식으로 정의 내려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박형룡은 주장했다(박형룡, 1988b: 128).

## (2) 과학적 범신론(Scientific pantheism)

박형룡에 의하면 하나님의 인격성은 기독교의 본질적 교리이며, 기독교의 하나님은 지성,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또한 의식, 사랑,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또한 내재적이면서 초월적인 분이시다. 그러나 세계가 자연의 법칙을 따라 내재하는 힘들의 항상 움직임에 의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믿는 유기체 사상이 발전함에 따라 신의 초월성을 희생시키고 신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사상들이 있어왔다. 이것이

바로 신의 인격성을 과정으로 해소시켜 버리는 범신론이다. 범신론자들은 신을 자연과 동일시한다(신즉자연).

그러나 그와 같이 이해된 신은 제한된 신이요, 진화의 과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박형룡은 비판한다. 이신론이 신을 세상 밖으로 내쫓았다면, 범신론은 신을 세상 안에 가두어 버린다고 그는 말한다. 범신론에 의하면 모든 종교적 생활이 불가능해 진다고 그는 비판했다. 인간과 신의 교제가 부정되는 곳에서 종교적 체험이 어떻게 존재하겠으며, 세상에 간혀있는 신에게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박형룡, 1988b: 133-34). 물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내재성을 믿지만 또한 초월성을 믿는다. 그러나 신을 우주적 세력과 자연의 과정으로 보는 과학적 범신론의 신관념은 철저하게 비기독교적일 뿐이다(박형룡, 1988b: 135-36).

박형룡은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간다. 우리는 "신의 세계 내재성을 공간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의미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박형룡, 1988b: 138). 이러한 내재성 이해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자연과 동일시될 수는 없고, 초월성을 위한 여지를 마련하게 된다. 박형룡은 인간의 인격이 초월적이어서 자아가 시간 속에서 계기들의 연속의 일부가 아니듯이 초월적인 인격성으로서 우주의 궁극적인 원인과 최종적 목적이신 지성과 의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0)</sup> 하나님은 무한한 계획을 가지시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세상을 그 계획대로 계속 운행되기에 필요한 모든 법들과 힘들을 부여하셨다.

박형룡은 자연과학적 추론에서 비롯된 무신론과 범신론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다룬 후에 그러한 추론들은 부당하다는 것을 반증하였다. 그리고 나서 장의 말미에서 "자연 과학의 빛에서라 해도 우리는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

10) 초월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In transcendence we have the idea of the origin and control of a thing by an activity or force the source of which lies outside the thing originated or controlled(139)."

을 믿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박형룡, 1988b: 141).

#### 4. 하나님의 사역에 대항하는 반기독교적인 추론들.

박형룡이 믿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의하면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 비활동적인 신성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의 인격성은 신적 행위들을 결과하는 그의 의도적인 의지를 포함한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현존하시며, 쉽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다(박형룡, 1988b: 146). 그러나 자연과학으로부터 끌어낸 잘못된 추론은 하나님을 부동하시고 비활동적인 신성으로 만든다. 그를 자연 법칙 안에 가두며, 그의 힘을 낮은 단계로 제한시킨다. 결과적으로 창조, 섭리, 계시, 기적, 그리고 기도와 같은 기독교 교리들이 과학과 신학이라는 현대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논문의 4장에서 박형룡은 이런 과학적 시대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들이 다 폐기될 것인가를 묻고 그에 대항하여 반증을 하려고 한다.

##### (1) 창조(creation)

이미 앞선 논의에서 지성적인 창조자에 의한 창조에 대해서 말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만물을 포함한다. 그러나 창조의 과정들과 방법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 넘는다고 박형룡은 말한다(박형룡, 1988b: 147).

이런 창조론에 대항하여 자연 법칙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능력의 직접적이고 비통상적인 현시에 의하여 우주가 기원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진화론이 일어나서 큰 영향을 행사해 왔다. 극단적인 경우는 우주 내에서 초자연적인 간섭을 일체 부정하기도 한다. 신학적인 사고들 속에 진화론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에 특히 창조론에 경우 심각할 정도라고 박형룡은 생각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진화론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의 마음에는 "진화론이 단지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발견되고 검증된 사실이 아니

라"는 확신이 굳게 자리 잡고 있다(박형룡, 1988b: 148).

박형룡은 태양계의 기원으로 제기되는 성운설(nebular hypothesis)에 대해서 먼저 논급한다. 우주적 진화 이론은 그 시작을 설명하는데 실패하였다고 그는 생각한다(박형룡, 1988b: 149-52). 이어서 박형룡은 식물과 동물의 진화를 주장하는 유기적 진화(organic evolution)에 대해서 다룬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해설한 이론으로서 많은 이들을 매료하고 있는 이론이다. 이에 의하면 진화는 "the development of life all the way up to, and including man"을 의미한다(박형룡, 1988b: 152). 이 이론은 기독교의 창조론에 가장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을 잘 논파하면 진화와 창조에 대한 논쟁은 끝나게 된다고 박형룡은 생각한다.

박형룡은 유기적 진화론에 대해서 과학자들 간에도 갑론을박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논술하고 비판해 나간다. 진화론적 구도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는 어디에서 생명이 기원했느냐 하는 지점에서이다. 박형룡은 여러 과학자들의 견해를 언급하면서 생명의 기원에 대한 자연주의적 견해는 실패를 공인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살아있는 유기체가 무생명의 물질에 의해서 산출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생명은 오직 선재하는 생명으로부터 기원해야만 하는 것이다(박형룡, 1988b: 155). 만약 살아있지 않는 것에서부터 생명이 산출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참으로 창조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다(박형룡, 1988b: 156).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에 대한 과학자들의 견해도 다양하다는 것을 예증하여 박형룡은 설명한다(버폰의 환경이론, 다윈이나 월레이스의 자연선택 이론 혹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론 등). 그러나 다윈조차도 한 종의 다른 종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시인했음을 박형룡은 언급한다(박형룡, 1988b: 158). 또한 정향진화(orthogenesis)의 이론들은 유기체적 세계의 진화는 유기체 안에 내재한 성장의 역량에 기인하여 시초부터 몇몇의 잘 표시된 방향들을 향해서 변형의 라인을 밟는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계주의적 설명을 부인하고, 정신적인 견해를 도입한다고 박형룡은 논평하면서 실제적으로 유신론적 진화론에 이르렀다고 말한다(박형룡, 1988b: 161-62). 박형룡은 유기체적 진화의 사실들을 입증한다고 하는 여러 분과들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 고생물학(palaeontology), 비교 형태론(comparative morphology), 발생학(embryology), 식물과 동물들의 지리적 분포를 진화의 강력한 증거로 제시하는 입장 등(박형룡, 1988b: 162-73).

박형룡은 이와 같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제이론들을 검토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진화론은 잠정적 가설일 뿐 발견되고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only a tentative hypothesis, not a discovered and proved fact)는 주장을 반복한다(박형룡, 1988b: 173, 참고 148). 박형룡은 몇몇의 과학자들조차도 이 사실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음을 예로 든다. J. J. 데이비스의 경우는 "진화론이란 하나의 다른 과학적 이론, 가설, 입수한 많은 양의 자료를 주의 깊게 도표화한 것으로부터 논리적 결론을 끌어내는 하나의 시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박형룡, 1988b: 174).

박형룡은 미래에 혹시라도 앞서 논파한 그런 진화론들이 참으로 입증된다 고 하면 신적 창조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파괴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유신진화론(theistic evolution)에 대한 질문을 다룬다. 박형룡의 입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장동민, 1998: 114-16; 2006: 112-14), 학위논문에서 나타나는 유신진화론에 대한 박형룡의 결론적 논평을 영문 그대로 옮겨 적어 본다:

Here we have constructed a second defensive line against the evolutionary attack upon the Christian doctrine of divine creation. That is, theistic evolution has been indicated as a tentative defence of creation which would be necessary only in case evolution were proven true. But there is as yet no evidence which establishes evolution as fact and which compels us to flee to this second defensive line as an attempt to

reconcile science and the Bible. Until such evidence is brought to light, it seems better remain in our first defensive line of anti-evolutionary attitude and to believe in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of the doctrine of creation (박형룡, 1988b: 177).

## (2) 섭리(providence)

박형룡이 견지하는 정통신학에 의하면 섭리교리는 창조주와 창조된 피조물 간의 현재적 관계를 다루고 있고, 하나님이 그의 보존과 통치에 의해서 우주를 위해서 현재도 사역하고 계심을 말해준다. 그리고 만물은 하나님의 보존에 의해서 존재를 계속한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는 디자인과 통제를 함축한다. "창조 교리는 인격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나온다"고 박형룡은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 본성 속에 있는 본성적 신념에 부합한다(박형룡, 1988b: 176-78).

박형룡은 자연과학으로부터 잘못 끌어낸 추론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반대하는데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자연 속에 있는 법 개념에 대한 과도한 강조(the overemphasis upon the idea of law in Nature)는 신적 내재에 대한 극단적 견해나 부재지주 같은 신(absentee God) 개념을 산출하게 되며, 이 두 가지는 다 섭리 교리를 부정한다"라고 논평한다(박형룡 1988b: 178). 박형룡은 내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한 후에, 이신론(Deism)에 대해서 비판한다(박형룡, 1988b: 180-83). 자연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살아있다는 사실은 우주 이면에서 위대한 지로적 능력이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는 "자연을 살펴보면 자연 속에는 섭리적 행동들이 현시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례들을 열거한다(박형룡, 1988b: 182-83).

## (3) 계시(revelation)

18세기의 이신론은 부재자 지주 같은 신을 믿기 때문에 신적 계시를 부인

하고 자연종교만으로 모든 인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세기에 이르러는 계시에 대한 모든 신념이 부패하고 만다.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계시의 부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며, 그의 아들을 통해서 계시의 정점에 이르렀음을 믿는다(박형룡, 1988b: 188).

박형룡은 계시에 대하여 제기된 종교의 진화(evolution of religion)론을 논술한다. 오귀스트 콩트의 물신숭배-다신론-유일신론, 그리고 프레이저의 미술-종교-과학 등의 이론 등에 대해서 논한다(박형룡, 1988b: 189). 박형룡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 성경 안에도 신관의 진화가 있다고 주장한 그라프-벨하우젠 이론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반박한다(박형룡, 1988b: 192-95).

#### (4) 기도(prayer)

신적 섭리에 대한 반대는 논리적으로 기도의 유효성에 대한 거부를 함축한다. 자연 법칙의 절대적 연속성과 신의 내재를 그의 우주 안에 가두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과학적 결정론의 사고에 의하면 기도의 유효성은 설자리가 없다. 과학적 사고에 물든 신자들 중에는 기도는 목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도 있다(J. Royce; 박형룡, 1988b: 195-97).

박형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 기도는 자연법칙의 전도나 파괴가 아니다. 특별한 섭리들과 이적적인 것을 혼동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개인이나 그룹이 그러한 경우에 간구할 것을 미리 보셨으며 허용하기로 결정 하셨다라고 그는 해명한다. 변화는 원인과 결과의 계기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박형룡은 기도의 무용론에 대해서 논박을 한 후에 현대 기독교인들이 기도의 습관을 버리고 있는 것을 통탄한다(박형룡, 1988b: 197-201).

### (5) 기적들(miracles)

박형룡은 현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를 수용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기적에 대한 신앙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비기정적인 기독교를 제시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 기적을 거부하는 입장은 자연법칙의 고정성 때문에 비정상적인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잘못된 과학적 추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박형룡은 지적한다(박형룡, 1988b: 201).

박형룡은 기적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소개하면서 기적에 대한 과도평가적인 정의들이나 과소평가적인 정의들이 기적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시킨다고 비판한다(박형룡, 1988b: 202-205). 그는 자신의 프린스턴 신학교 재학 시절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캐스퍼 위스타 하지 2세의 정의를 소개하고 채용한다: "A miracle is an event due to the immediate activity of God apart from second causes"(박형룡, 1988b: 205). 박형룡에 따르면 기적이란 새로운 힘을 자연에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의 법칙을 파괴하거나 어떤 자연의 세력들을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혹은 웨드가 내린 "a miracle is an extraordinary act of God"이란 정의도 합당하다고 소개한다(박형룡, 1988b: 206). 박형룡은 두 정의를 조합하여 "기적이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an immediate and extraordinary act of God)이라"고 정의내린다(박형룡, 1988b: 206).

하나님이 직접적이고 특별하게 행동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 후에, 박형룡은 하나님이 세계의 창조주이시라면 세상 속에서 간섭할 권리나 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기적들은 자연법칙과 별도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기적들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자연 법칙들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박형룡, 1988b: 209). 창조주 하나님은 도덕적 명분을 위해서 물리적 세계 속에 특별한 방식으로 개입하실 수 있으며, 인류가 빠진 끔찍스러운 오류에서 구속 받기 위해서는 기적들이 필수적이라

고 본다(박형룡 1988b: 212).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의식을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동이지거나 비활동적인 신성이 아니시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은 존재를 부여하시고, 모든 우주를 붙드시고, 운행케 하시고, 통치하시며, 땅위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며,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박형룡은 "자연과학의 빛에서도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되다"고 말한다. 여기서 세상은 그것의 의미, 생명,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한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혼을 다해, 그리고 힘과 지성을 다해 사랑하자고 권면함으로 4장을 끝맺음한다. 박형룡은 원래 시정(詩情)이 풍부한 분이었던 것이 학위논문에서조차도 드러난다. 4장을 끝맺음하면서 그는 브라우닝(Browning)의 시와 로버트 그랜트(Robert Grant)경의 시를 길게 소개한다(박형룡 1988b: 213-15).

## 5. 인간 본성에 대한 고등한 견해에 대항하는 반기독교적인 추론들

박형룡은 종교를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올바른 인간관이 견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독교 인간관은 신론에 버금가는 교리이며, 기독교 인간관은 고등하다고 그는 5장 서두에서 주장한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에 기원하며,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으로, 그의 운명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하는 것으로 계시되고 있다. 그러한 인간관은 인간을 신적 계시의 수납자,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의 대상, 그리고 종교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주체로 만들기 때문에 인간을 높게 본다(박형룡, 1988b: 223).

### (1) 인간의 기원(Origin of Man)

기독교는 인간에 대해서 신적 기원을 말한다. 몸에 대해 간접적인 창조, 영혼에 대해 직접적인 창조를 말한다(박형룡, 1988b: 225). 반면에 진화론에서는 인간의 몸과 영이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진화론은 인간을 자연의 최고 질서(즉 진화의 최고 절정)에 위치시키나 진화된 사물들의 하나로 본다. 박형룡은 '인간 몸의 짐승 기원설'을 특별히 다룬다. 유인원이나 원숭이에서의 진화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 해부상의 차이를 들어 반박하고(박형룡, 1988b: 227), 발생반복설이나 혈액의 동질성을 근거로 드는 것에 대해서 논박한다(박형룡, 1988b: 229-30) 또한 박형룡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람과 원숭이의 공동 조상을 상정하여 인간 몸의 짐승적 기원설을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논박한다(박형룡, 1988b: 231-34). 진화론이 주장하는 모든 견해들은 망상적(illusory)라고 일축해 버린다(박형룡, 1988b: 234).

인간 영혼의 기원에 관해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믿는다. 인간 영혼은 자연의 창조자의 직접적 창조이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본다. 영혼은 물질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으며, 어떤 물질로부터 연원하거나, 해소되어질 수 없다고 본다(박형룡, 1988b: 235). 그러나 과학자들은 '연속적인 정신적 진화 이론'(the theory of an unbroken mental evolution)을 주창하였다. 다윈에 의하면 정신적 진화이론은 유기적 진화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박형룡, 1988b: 236). 그리고 다윈의 근본 명제는 인간의 마음과 고등한 동물들의 마음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종류의 차이는 아니라고 주장한다(박형룡, 1988b: 240). 박형룡에 의하면 다윈과 추종자들은 인간과 짐승간의 심리학적 차이(psychological difference)를 흐리멍덩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었는데, 그들의 전략의 목표는 인간의 야수화와 짐승의 인간화 두 가지로 나타났다.

짐승의 인간화(the humanization of the brute)는 짐승의 심리적 능력을 인간적 차원까지 높이려는 것이다. "그들은 동물의 감각적인 의식과 무의식적

인 목적론을 의식적인 지성과 혼동하고 있다"고 박형룡은 비평한다(박형룡, 1988b: 241). 박형룡은 진화론자들이 짐승에게서 발견되는 여러 현상들(경험에 의해서 배운다거나 소리로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혹은 본능의 주목할 만한 현상들)을 들어서 짐승의 인간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고찰하고 논박한다(박형룡, 1988b: 242-44).

진화론자들은 또한 인간의 야수화(the brutalization of man)를 주창한다. 이에 대해서 박형룡은 기독교 유신론은 짐승에 대하여 인간의 마음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과 품위를 발견한다고 말하면서 제임스 오르(James Orr)의 글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인간은 인격적이고, 자의식적 존재이다. 인간의 자의식적이고 인격적인 삶은 그 자체로 합리성의 현시이다. 인간만이 추상화의 능력과 일반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박형룡, 1988b: 245-46). 인간과 짐승 사이에 가장 높은 구별점은 도덕감(moral sense)이다(박형룡, 1988b: 247). 반면에 찰스 다윈은 인간이 가진 정신적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다른 동물들도 가지고 있으며 양자 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고 말했다. 다윈은 양자가 가진 생물학적 연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간 정신과 동물적 본성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나 박형룡은 다윈이 증거 없는 주장을 했다고 본다. 그는 "야만적인 인종은 선교에 의해서 개종되고 변화되기도 하지만, 원숭이가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라고 논박했다(박형룡, 1988b: 248-49). 다윈도 어떤 곳에서 어떤 동물도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고 고백했다고 박형룡은 말한다(박형룡, 1988b: 249).

박형룡은 인간 마음의 우수성을 거짓된 가정들에 근거하여 최소화하여 인간을 야수화하려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인간 마음의 동물적 기원을 입증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헛된 일이라고 비판한다. 인간의 마음의 기원에 있어 최고의 지성의 특별한 행동을 요구한다고 그는 말한다. 기독교 유신론이 견지하고 있는 인간 영혼의 신적 기원설이 전적으로 옳다고 본다(박형룡, 1988b: 250-51).

## (2) 인간의 본성(Nature of Man)

인간 영혼의 신적인 기원을 변증하면서 이미 인간 본성의 고등한 관점이 언명되었으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성경의 계시가 인간 본성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라고 박형룡은 소개한다(박형룡, 1988b: 251).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은 영적이며, 자의식적이며, 인격적이며, 합리성과 도덕적 삶을 위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최상의 것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박형룡은 이것을 짧게 줄이면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한다(박형룡, 1988b: 252).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 전제이지만, 자연과학으로부터 끌어낸 반 기독교적 추론들에 의해서 반론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당대에 발전하고 있던 심리학에서의 공격이 심했다. 그러나 박형룡은 "심리학이란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자연과학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바르게 지적한다(박형룡, 1988b: 253). 박형룡은 영혼의 존재에 대한 심리학과 과학의 이름으로 제기된 반론들을 논술하고 논파한다. 생물학적 연속성의 원리가 심리학과 비교 심리학의 영역에 과급되어서 제기하는 반론들에 대해 답하고(박형룡, 1988b: 253-55), 마음과 두뇌의 관계에 대한 생리학적 관점(유물론)에 대해서 논파하고(박형룡, 1988b: 255-58), 정신물리학적 병행론(psychophysical parallelism)에 대해서 논한다(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각기 원인 관계없이 동반하는 병행으로 보려는 네 가지 입장 (박형룡, 1988b: 259-62). 그는 또한 행동주의적 반론에 대해서도 다룬다(박형룡, 1988b: 262-64).

박형룡은 영혼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론들의 오류들을 논박한 후에 심리학적 사실들의 빛에서(in the light of psychological facts) 영혼의 실재적 존재에 호의적인 논증을 시도한다. 인간의 내적 의식은 우리의 사고, 감정, 그리고 욕망의 내주하는 주체가 우리 속에 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지시한다(박형룡, 1988b: 262-66). 박형룡은 심리학이 영혼의 존재를 부인함으

로 기독교의 뼈대를 부러뜨릴 만큼 강력한 반대세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자연과학에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다.<sup>11)</sup> 자연과학에서 끌어낸 잘못된 추론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는 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영혼의 존재를 믿는다는 점을 부언한다. 글래스고우에서 모인 3천명의 과학자들은 "Science is not setting forth to destroy the soul, but to keep body and soul together"라고 선언했다고 박형룡은 소개한다(박형룡, 1988b: 266).

박형룡은 "인간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면 자유의 실재를 함축하게 된다"고 말한다. 의지 작용은 인간 영혼의 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도덕과 종교의 영역에서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한다. 박형룡은 자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Freedom means that we, under normal conditions, can act without our acts being necessitated by forces above, beyond, or apart from us(박형룡 1988b: 267).

성경은 인간에게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그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말 씀한다. 만약 인간이 자유롭지 않다면 책임을 질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정론(determinism)의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들이 제기되었다고 박형룡은 소개한다. 그에 따르면 결정론은 잘못된 추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결정론은 인과율의 체계에 근거해 볼 때 자유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고, 수정된 결정론은 인간이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형성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주장한다(박형룡 1988b:

---

11) "We hear men saying that natural science has so far attacked Christianity only with scratches of the skin, but now psychology is crushing her bones, by denying the soul. But the fact of matter is that there is nothing in natural science that calls for the denial of the soul(박형룡, 1988b: 266)."

268-69).

### (3) 인간의 운명(The Destiny of Man)

세계 도처에 살고 있는 인류는 인간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박형룡은 지적한다. 그는 성경의 여러 증언들을 언급하고, 부활에 대한 언급도 모두 불멸성의 증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헤켈과 같은 이는 영혼 불멸성이 미신을 떠받드는 삼대 버팀목중 하나라고 비판하였다. 영혼 불멸론에 대해서 과학적 반론이 제기되었다. 인간 존재의 동물적 기원을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은 생물학적 연속성, 즉 동물과 인간의 연속성의 원리에서 불멸성을 부인한다(박형룡, 1988b: 274). 그러나 박형룡은 진화론자 중에도 진화를 영혼 불멸을 위한 호의적인 논증의 기초로 삼는 이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소개한다(박형룡, 1988b: 274-76).

과학으로부터 제기되는 두 번째 반론은 우리의 체험상 신경 체계 없는 의식적 삶(conscious life without a nervous system)을 볼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새로운 심리학이 주장하는 바였다. 박형룡은 두뇌는 의식에 다만 수반하는 것이라는 반박을 한다(박형룡, 1988b: 277). 두뇌는 의식의 산출자가 아니라 전달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마음은 두뇌를 창조하지 않으며, 두뇌가 마음을 창조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양자는 그들의 근거와 조화를 인격적 자아 속에서 발견한다고 말한다. 사람이 죽고 나서도 영혼은 인격적 연속성을 가진다고 박형룡은 논증한다(박형룡, 1988b: 278-79). 그는 자연과학이 영혼의 불멸성의 진리를 위한 증거를 제시하는 입장에 서있지도 않지만, 부정하는 입장에 있지도 않다고 논평한다. 자연과학의 빛에서 보면 불멸성의 가능성과 개연성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한다(박형룡, 1988b: 280).

박형룡은 불멸 교리에 이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논의한다. 인간의 영과 육이 연합하여 한 인격을 형성하지만, 몸과 떨어져서도 인간 영혼은 독자적인 현존이 가능한 하나의 완전한 존재라고 그는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에게는 몸의 부활이 약속되고 있다. 인간 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위에 근거하고 있다(박형룡, 1988b: 281). 그러나 이와 같은 교리에 대해서도 자연과학적인 영향을 받은 이들에 의해서 반론이 제기되었다. 진화론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영혼의 불멸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몸의 부활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형룡도 부활교리가 본성상 자연과학적 근거위에서 변증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부활은 자연적 힘이나 법에 의해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이기 때문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박형룡, 1988b: 282-283).

박형룡은 논문의 5장 말미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what is man?)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에 의하면 자연과학을 최종 권위로 삼는 이들은 저등한 인간관을 가지게 된다고 논평한다. 기원, 본성 그리고 운명에 있어서 사람과 동물 사이의 차이점을 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신론자의 경우에는 사람은 신적 손에 의한 특별한 창조의 산물이며, 창조주 자신의 형상이고, 그의 불멸의 생명을 분유하는 자이라고 믿기 때문에 고등한 인간관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인간관은 자연과학의 조명아래에서도 손상되지 않은 채 남는다고 박형룡은 주장한다(박형룡, 1988b: 283). 고등한 인간관을 가지게 된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박형룡은 권면하기를 잊지 않는다:

Man, in living, ought to be conscious of his noble origin, nature, and destiny. He ought to strive to glorify and enjoy his Creator, in conformity with the divine purpose implied in his creation. He ought to do his best to preserve and cultivate the divine image in him, and to fashion his life for a glorious transition from time into eternity(박형룡, 1988b: 285).

## 6. 죄와 구원에 대한 고등한 견해에 대항하는 반기독교적인 추론들.

박형룡은 논문의 마지막 6장을 죄와 구속에 대한 비기독교적 추론들을 다루는데 할애한다. 근대인은 저등한 인간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매우 높게 여긴다. 심지어 창조주를 부인하고, 자신을 타락한 존재로 보기 보다는 진화해 가는 존재로 본다. 박형룡은 초두에서 지적한다. 반면에 성경은 인간의 고등한 기원과 본성을 말씀하면서도 비극적인 타락 사건에 대해서 역시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성경 전체는 구속의 역사이다(박형룡, 1988b: 291-92).

### (1) 인간의 타락(The Fall of Man)

박형룡에 의하면 타락의 교리는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아왔으며,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타락의 교리를 포기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타락기사는 역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박형룡, 1988b: 293).

① 죄의 기원. 진화론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타락의 교리를 포기하게 되는데 양자는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것까지도 동물 조상에게서 진화된 것으로 본다면 타락이 개재할 자리가 없게 된다. 죄는 일찍은 단계에서의 미성숙 혹은 무지일 뿐이게 된다(박형룡, 1988b: 294). 신학으로부터 타락교리를 추방한 후에 따라오는 치명적인 결과는 새로운 무죄한 인간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평에 대해서 어떤 진화론자들은 죄의 기원을 인간이 동물적 조상으로부터 상속하게 된 동물적 정욕에서 찾으려 한다(박형룡, 1988b: 95).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이들도 있

다. 인간의 신체적 측면은 동물에 관련시키고, 영적인 본성은 특별한 창조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제임스 오르는 이러한 입장에 서서 창세기의 기사를 우화적이고 비유적인 의상을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박형룡 1988b: 296-97). 그러나 박형룡은 이런 중도적인 입장을 거부한다. 그는 타락을 반증하는 과학의 입증된 사실들이 없으며, 타락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성경 속에, 양심 속에, 그리고 인간 사회의 실제적인 조건 속에 있다고 천명한다. 진화론적 견해는 인간 안에 있는 최상의 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인간 안에 있는 최악의 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적인 견해는 인간의 현재의 타락뿐 아니라 현재적 위대성을 더 잘 설명해준다(박형룡 1988b: 298).

② 죄의 유전(Heredity of Sin). 최초 인간의 범죄가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펠라기우스는 전적으로 부정했는데, 진화론자들 역시 인간 본성 내재하는 최악된 성향의 교리에 반대한다. 진화론자 중에는 획득된 형질은 전승될 수 없으며, 인간의 죄가 기원에 있어서 자발적인 것이라면 인간본성에 미친 영향도 유전을 통하여 전승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박형룡, 1988b: 299). 박형룡은 개인이 탁월하며 유전에 의해서 다음세대에 전할 수 있는 지적이고 도덕적인 특징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원하는 현대 우생학(eugenics)의 예를 들어 앞선 반론에 대한 반박을 한다. 우생학은 첫 세대의 탁월한 정신적인 자질들을 다음세대에 전수함에 의해 인종 개량을 추구하였다. 이렇게 탁월한 정신적 자질도 전수가능하다면 최악된 특질도 전수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냐고 박형룡은 반문을 한다(박형룡, 1988b: 301-302).

③ 죄의 물리적 결과(Physical Consequence of Sin). 성경에 의하면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 선언된다. 그러나 자연주의자들은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죄의 결과로 보는 유신론의 입장을 불합리하다고 비판한다. 인간의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인간의 집합적인 본성과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지닌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근거로 해서 볼 때에 우리는 죽음이 인간의 자연적인 운명이라고 하는 자연주의적 견해를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박형룡은 답변한다(박형룡, 1988b: 305). 박형룡은 인간의 원래적 조건은 죽지 않을 수 있는(able not to die) 조건에 있었지만, 만약 첫 인간이 순종했다면 이 조건은 죽을 수 없는(not able to die) 조건으로 옮겨졌을 것이라는 어거스틴의 견해를 수용한다(박형룡, 1988b: 306).

## (2) 죄의 본성(The Nature of Man)

진화론은 죄의 본성에 대해서도 잘못된 견해를 주장한다라고 박형룡은 비판한다. 진화론에서는 인간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risen)라고 주장된다. 인간은 동물적인 낮은 수준에서 현재의 높은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에 대한 관점은 사라지고 죄는 인간의 도덕적 발전의 한 필연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러나 박형룡에 의하면 성경은 분명히 죄를 실제적이고 유전적인 것으로 말하고, 피조물의 자유로운 행동에서 그 설명을 찾아야 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원래적 관계를 최소화 시키는 어떤 것으로 말한다(박형룡, 1988b: 306).

진화론에 의해 죄는 자발적 성격 대신에 필연성의 원리를 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지와 별 관련성이 없게 된다. 또한 죄란 진화와 양립 불가능한 개념으로 말해진다. 최악 된 행동은 인간 안에 있는 유전에 돌려지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진화의 법에 대한 위반으로 평가되므로 죄악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죄책감이 설 자리가 없게 된다. 그리고 이들에 의하면 인간의 자이는 치료가능하다고 본다(박형룡, 1988b: 308-10). 죄를 심리적인 침체로 보려는 입장도 있다. 특히 하버드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 이론의 대변자이다. 그에 의하면 죄책감은 청소년기의 정서 발전의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속성에 불과하다고 본다(박형룡, 1988b:

310-12). 박형룡에 의하면 죄에 대한 부정은 신존재와 신적계시에 대한 부정과 연계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유신론과 죄책감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죄에 대한 적절한 견해는 성경적인 견해라고 박형룡은 주장한다(박형룡, 1988b: 312-13).

### (3) 구원(Salvation)

성경은 첫 사람이 모든 후손들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정죄, 죄, 그리고 비참에 빠지게 하였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수립되고 성취되어졌다고 또한 선포한다. 기독교 구원의 목표는 개인 영혼들을 정죄,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해 내는 것이다. 박형룡에 의하면 사회의 외적인 개선은 개인 영혼의 영적인 구원의 부산물일 뿐이라고 설명한다(박형룡, 1988b: 315).

① 구원의 의미. 진화론은 성경과 다른 구원의 개념을 제시한다. 정의와 평화의 이타주의를 증진하는 것이나 혹은 단순히 선한 삶 등을 구원의 개념으로 주장한다. 혹은 종(species)의 복지와 진화가 주요 관심이 되기도 한다. 사회 구원론에 의하면 개인보다는 인간 사회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는다(박형룡, 1988b: 315-17). 이러한 목표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투쟁과 노력이라거나, 우생학과 환경 우생학, 교육 그리고 종교 등이다. 이런 체계에 서는 종교란 그저 여러 구원 수단들 중 하나에 불과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구원 수단으로 추천되는 것은 자연과학이다. 근대과학적인 자연 통제는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어떤 악들을 제거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자연 과학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거는 것이다(박형룡, 1988b: 318-20). 박형룡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과학은 인류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악으로부터 인류를 실제적으로 구원할 소망은 없다고 본다. 삶의 가장 큰 악들은 인간의 통제밖에 있기 때문이다(박형룡, 1988b: 320). 과학은 이 땅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

다고 그는 말한다(박형룡, 1988b: 321).

② 구원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구원자로 선포하고 있지만, 진화론자는 예수를 진화의 산물로 본다고 박형룡은 논평한다.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선재성이나 신성이 용납될 여지가 없다. 예수는 우주적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고 역사적 의미를 가지게 되며, 진화 과정들의 산물일 뿐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박형룡, 1988b: 322-25).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은 과학적인 근거보다 더 높은 근거위에서 입증될 수 있으며, 자연과학은 그것을 입증하지도 반증하지도 못한다고 말한다. 그는 "과학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Science has nothing to do with Christ)"고 말한 다윈의 말을 긍정적으로 인용하기도 한다(박형룡, 1988b: 325). 박형룡은 초자연적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합리적임을 주장한다: 첫째 만약 자연이 하나님의 계시와 그의 행동의 장으로서 여겨진다면, 신인(神人)의 왕립은 기대되어졌고 아주 개연적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강림하셨을 때 존재하던 세력들의 산물이 아니시다. 당시의 로마 헬라 문화든지 아니면 유대교의 정황을 다 살핀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해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처한 환경의 진화적 과정의 산물이 결코 아니었다"는 말이다(박형룡, 1988b: 329-30).

③ 천당. 천당에 대한 옛 믿음은 아주 값진 것이어서 경건을 불붙이고, 신앙을 강하게 하고, 소망을 키워주며,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했던 수백만의 용기에 불을 붙여 주었다. 하지만 근대 자연과학 특히 천문학으로부터 끌어내진 잘못된 추론들에 의해 천당의 존재가 부인되고 있다. 우주 어디에서도 물리적 천당을 발견할 수 없다는 주장을 그들은 발한다(박형룡, 1988b: 330).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장소적 의미에서 천당이 있음을 가르치셨다. "천당은 천문학상의 중심이다"고 말한 발렌테인 헤프(Valentijn Hepp) 교수의 말을 박형룡은 인용하기도 한다(박형룡, 1988b: 331-32; Hepp, 1931: 181). 불멸의 존재를 위한 천당은 우리가 가진 자연적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말도 한다

(박형룡, 1988b: 333). 천당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해도 그것의 투명성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박형룡, 1988b: 334). 다만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의존해서 천국의 중요한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다고 박형룡은 말한다(박형룡, 1988b: 335).

박형룡은 6장 말미에서 "산 소망(living hope)"이라는 제목을 단 작은 지면을 통해서 자신의 논문의 결론을 내린다(박형룡, 1988b: 335-37).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은 만약 성경에서 가르쳐진 기독교의 중심적 교리들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착각에 불과할 것 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연과학에서 끌어낸 잘못된 추론들이 이러한 진리들을 거짓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연과학의 빛에서도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이 완전히 정당화될 수 있다(perfectly justifiable)고 말한다. 자의식적이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따위에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적들을 베푸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적 창조물로서 자유롭고 불멸의 영혼을 지닌 인간에 대한 고등한 관념, 죄와 구속에 대한 성경적인 관념들 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산소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신실한 과학자의 가슴에도 이 소망이 살아있다고 말한다. 과학은 나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다는 푸팽(Pupin) 박사의 말을 인용한 박형룡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박형룡, 1988b: 337):

Science, reverently studied, may indeed bring this beautiful and beneficent result. Science studied in a spirit of human pride and self-sufficiency may, on the other hand, lead to the dire results of false inferences drawn from truth.

#### IV. 결론

우리는 이상에서 한국 장로교회 신학적 기초를 놓은 박형룡의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박형룡이 일제 강점기라는 민족적 수난의 시기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들 속에서도 신학 공부를 단시간에 박사논문을 완성했다는 것만으로도 후학들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준다. 그 시절보다 더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박형룡 만큼 성실하게 신학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자탄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가 신학수업을 시작한 1923년부터 박사논문 작성을 완성한 1931년에 이르기까지의 전기적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박형룡의 신앙적 인격의 고결함과 그의 학자적 소양이 광휘를 발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박형룡의 박사논문인 "자연과학으로부터의 반기독교적 추론"은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관한 주제를 다룬 것인데, 그는 자연과학에서 이끌어낸 잘못된 추론들로 인해 과학과 신앙이 충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연과학을 제대로 연구하면 신앙과 충돌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의 논문은 앞서 분석한대로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를 다루고 있는 1장에서 시작하여 성경,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인간본성에 대한 고등한 견해, 죄와 구원에 대한 고등한 견해에 대항하는 반기독교적인 추론들을 다루는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형룡은 자연과학에 의해 제기된 신앙에 대한 공격은 과학과 종교 간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과학이 인류에 기여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과학에도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과학으로 인생의 모든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라고 보았다. 그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과학과 종교의 바른 관계는 과학이 종교의 기반이 되고, 종교는 과학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런 바른 관계를 설정한다면 과학이 기독교를 잘못 공격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논문에서 반

복적으로 강조하고 입증하고자 한 논지는 과학이 기독교와 충돌하는 것은 과학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부터 끌어낸 잘못된 추론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반 기독교인들이 과학으로부터 잘못된 추론을 이끌어내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박형룡은 성경이 과학적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과학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고 과학이란 과정적인 것으로 과학이 완전해진다면 성경의 진리와 대립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사람들이 과학에 근거하여 무신론이나 범신론을 주장하지만 이는 사물의 존재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자연과학이 사물의 기원을 밝히려고 주재님을 짓을 한 결과라고 논박하였다. 그리고 자연과학으로 잘못된 추론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 또 자연과학을 근거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고귀함을 파괴하고, 인간 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최악 된 성향을 반대함으로 인간의 비참함도 외면한다. 이에 대해 진화론적 견해는 인간 안에 있는 최상의 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인간 안에 있는 최악의 것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다. 박형룡은 자연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자연과학에서 잘못된 추론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과학은 기독교의 근본교리들을 정당화하는데 쓰일 수 있고 자연과학으로 인해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룡의 논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비록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박사논문을 써서 통과했지만 그의 변증학은 구 프린스턴의 변증학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보다 더 구체적인 논평은 또 하나의 논문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요목만 지적하고 논문을 끝맺음하려고 한다(이하의 요점들은 장동민, 1998: 111-16에서 발췌한 것이다): 첫째 과학과 종교는 서로 대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창조한 한 우주의 두 국면이

라고 보고, 진정한 종교인 기독교는 과학의 영역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 둘째 근본주의자들과 달리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근대 과학의 업적에 대하여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박형룡도 학위 논문에서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셋째 박형룡은 워필드처럼 유신진화론의 과학성을 의심하면서도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이러한 그의 유연한 태도는 1935년에 한글로 쓴 『근대과학난제선평』에서부터 버리게 된다). 박형룡의 논문 속에 미친 구 프린스턴 신학 전통의 영향이 얼마나 심원한지는 더 깊이 다루어야 할 또 다른 주제이다. 그리고 박형룡이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다룬 1920년대 이후 약 80여 년 동안 과학적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간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박형룡과 동일한 노선의 연구 노작들이 출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박형룡은 당대의 핫 이슈였던 진화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였지만, 오늘날은 생명공학을 비롯한 최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을 소회하고 기독교적으로 비판하는 작업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도 시도되고 있지만 특히 신학 분야 중의 하나인 변증학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김길성 (1996), 『개혁신학과 교회』,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박용규 편집 (1996), 『죽산 박형룡 박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박형룡 (1983), 『교의신학-인죄론』 저작전집 III,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_\_\_ (1988a), 『교의신학-신론』 저작전집 II,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_\_\_ (1988b), 『학위논문』 저작전집XV,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 *Anti-Christian Inferences from Natural Sciences*, 1931).  
 \_\_\_ (1988c), 『세계견문록』 저작전집 XVII,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_\_\_ (n.d.a), 『현대신학비평(상)』 저작전집 VIII,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 \_\_\_ (n.d.b), 『현대신학비평(하)』 저작전집 IX,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 이상웅 (2004), "박형룡과 화란 개혁주의 신학과의 관계연구," Th. M 논문, 총신대학교
- 장동민 (1998), 『박형룡의 신학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_\_\_ (2006), 『박형룡: 한국 보수신앙의 수호자』, 서울: 살림.
- Callhoun, David B.(1996). *Princeton Seminar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6.
- Hepp, Valentijn (1930), *Calvinism and the Philosophy of Nature*, Grand Rapids: Eerdmans.
- Hodge, Charles (1872), *Systematic Theology I*, New York: Scribners/ Sons.
- Machen, Gresham J. (1923). *Christianity and Liberalism*, Grand Rapids: Eerdmans.
- Noll, Mark A. (1983), *Princeto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Abstract

An Analysis of Anti-Christian Inferences from  
Natural Science by Dr. Hyung Nong Park.

Sang Ung Lee(Taeshin Christian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the synopsis of Dr. Hyung Nong Park's Anti-Christian Inferences from Natural Science rather than some perfect analyses of it. At first, this article discuss the Sitz in Leben that is indissoluble for his theology and thereafter outline and analyze his doctoral dissertation.

Throughout his doctoral dissertation, he had in mind the idea of the identity and relation of natural science and religion(or faith). In the view of Dr. Park, it is to distinguish natural science itself from unlawful inferences from natural science that it is required as priority in order to maintain the lawful relation of religion and natural science. As Park mentions, "natural science aims only to describe the phenomena of nature by the inductive method." If natural science try to go beyond its own limitations to be (as a closed system) naturalism or materialism by the arrogant oversimplification, inevitably it will infringe on the realm and right of religion.

Dr. Park emphasizes that both religion and natural science don't exclude nor replace nor even collide each other. As Bible is "not textbook of science but a

history of redemption", so valid natural science is no philosophy nor religion nor "-ism" but rational and inductive explanation of the law of nature. All unlawful inferences from natural science isn't based on valid scientific facts but on naturalism, materialism and anti-supernatural closed system that leave no room for the almighty-personal-living God.

Natural science has a descriptive function not prescriptive one, is science not religion and is not able to redeem humans and create God's Kingdom. If natural science produce real scientific knowledges, natural science has to remain in its own place not at all to pretend itself to be religion. Then, Only then, natural science can bring some beautiful and beneficent results. What is more, Natural Science, reverently studied, makes the investigator the better Christian!

Keywords: Hyung Nong Park, Faith and Science,  
Apologetics, Korean Presbyterian Churches.